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가결...중동발 위기 속 창사 2번째 파업

쟁의투표 결과 93% 찬성...노조 "4월 집회, 5월 총파업"

최대 노조 주력이 반도체 부문...조단위 손실 예상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는 5월 총파업을 벌이기로 하면서 2년 만에 파업 사태가 재연되게 됐다.

중동 사태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이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파업으로 조 단위의 손실까지 예상되면서, 오랜 부진 끝에 반등 기회를 잡은 삼성전자의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9일부터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93.1% 찬성률로 쟁의권 확보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투표에 참여한 노조는 전체의

과반인 6만명이 넘는 조합원을 확보한 초기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비롯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삼성전자노조동맹 등이다. 이번 투표에는 이들 3개 노조 재직 조합원 8만9천874명 중 6만6천199명이 참여해 투표율 73.5%를 기록했고, 6만1천456명이 찬성했다.

노조는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진 데 이어 이번 투표 결과로 쟁의권을 법적으로 확보했다.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4월 23일 집회를 열고, 5월 총파업까지 성과급 정상화와 정당한 보상 체계 실현을 요구하며 투쟁

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2026년 임금교섭의 핵심 요구 사항으로 성과급 산정 전지부위를 비롯해 전국삼성전지, 임금 인상률 7%를 요구하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2024년 7월 25일간의 총파업에 이어 약 2년 만에 삼성전자에서 1969년 창사한 이래 2번째 파업이 된다.

공동투쟁본부는 지난해 11월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3개월여 동안 사측과 임금 협상을 벌였으나, 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끝에 노조는 지난달 19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 조정 중지를 신청했다.

중노위는 지난 3일 2차 조정 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고 이에 노조는 공동교섭단을 공동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나서는 등 쟁의권 확보에 나섰다. 삼성전자가 협상 결렬 후 공개한 세부 내용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의 성과급 제도 투명화 요구에 따라 OPI(조과이익성과급) 재원을 EVA(경제적부가가치) 20% 또는 영업이익의 10%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임금 인상을 6.2%, 자사 주 20주 지급, 직급별 셀러리캡 상향, 장기 근속 휴가 확대 등 다양한 급여 및 복리후생 개선안을 내놨다. 노조는 OPI 지급에 있어 사업부 간 차등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본급 인상 요구를 하향하면서도 OPI 상한 폐지 요구는 포기하지 않은 결과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총파업 돌입 시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손실액이 최대 9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 겸 DS 부문장은 "마음 고생 많으셨다"는 주주들의 격려에 "다시는 작년과 같은 반성과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나, 노조는 불과 3시간도 지나지 않아 파업을 선언했다. 공동투쟁본부는 "삼성전자 노동자 절대 다수가 현 사측 제시안이 '인재제일' 경영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을 분명히 선언한 것이며, 요구 관철을 위해 행동에 나서라는 경성진을 향한 강력한 경고"라며 "4월 집회와 5월 총파업을 통해 사측을 단계적으로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회사는 2026년 임금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한전·파라과이, 송변전 마스터플랜 수립 계약 체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주 사업 계약 체결... 송변전 마스터 플랜 컨설팅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발주한 "파라과이 송변전 마스터플랜 수립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 관련 노하우를 협력대상에 공유하고 적합한 정책대안 등을 제시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주요 역무는 ▲파라과이 국가기간망 보강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송변전 마스터플랜 수립 방법론 분석 ▲개선 정책제언 ▲전

력 분야 관계자 역량강화 초청 연수 ▲연계사업 기획 등이며, 사업기간은 11월까지다.

본 컨설팅은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컨소시엄사인 (주)유신과 협업해 추진하는 것으로, 3.17(화) 파라과이 전력청(ANDE)에서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현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이어진 실무회의에서는 한전만의 계통 핵심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사업 실무자들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협의했다.

파라과이 전력청은 한전의 우

수한 계통계획과 운영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번 사업이 파라과이의 중장기 전력망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철 사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한전의 독보적인 계통 기술력이 파라과이 전력 인프라 개선과 신뢰도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중남미 전력시장에서 송변전 투자 사업을 확장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신기술 사업화와 연계 사업 개발 등 다양한 후속 협력 기회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기자재 제작사들이 중남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등 상생 협력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이영진 기자

기후 위기 시대, 'K-HAS CS 2.0'으로 미래 기후 적응력 ↑

미래 기후데이터 기반 분석 프로그램(K-HAS CS) 고도화로 효율성 높였다



기후 위기가 가속하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미래 기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안정적인 영농 기반 제공을 위해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수리·수문 설계시스템(K-HAS CS*)'을 고도화한 'K-HAS CS 2.0'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전례 없는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되면서 미래 기후를 반영한 시설물 설계의 필요성이 높아

지고 있다. 이에 공사는 'K-HAS CS'를 개발해 농업용 시설물 설계에 미래 기상자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학계·기업 등 민간에도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민간 활용 건수는 807건에 달한다.

공사는 이번엔 'K-HAS CS'의 고도화 버전을 선보이며 기능을 한층 확장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효율성'이다.

기존에는 여러 변수에서 단일 조건만을 선택해 분석할 수 있었

으나, 이제 최대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비교·분석할 수 있다. 작업 속도가 빨라진 것은 물론, 변수 간의 영향 분석도 가능해졌다.

결과 표현 방식도 표와 그래프 중심에서 그림 자료를 추가해 사용자가 결과를 더욱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미래 홍수 분석 기능을 새롭게 더해 활용 범위를 넓혔다.

공사는 고도화된 프로그램을 활용해 홍수·가뭄 등 재해 취약 지역의 미래 기후 영향을 검토하고 신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민간 무료 개방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태현 한국농어촌공사 기후대응처장은 "농업용 시설물 설계기준 재정비라는 제도적 기반과 프로그램 고도화라는 기술적 혁신을 함께 추진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기후 재해로부터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우리銀, 소상공인 부담 낮추는 '우리 사장님 대출(갈아타기)' 출시

금융권 공동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맞춰 전용 상품 출시 모바일·대출비교 플랫폼으로 간편 신청...네이버페이 포인트·신세계 상품권 제공

우리은행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전용 대출 상품인 '우리 사장님 대출(갈아타기)'을 1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상품은 금융권 공동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행에 맞춰 출시했다.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와 조건을 비대면으로 비교해, 더 유리한 조건의 우리은행 상품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은행은 '우리 사장님 대출(갈아타기)'을 출시하고 맞춤형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대출 한도에는 제한이 없으며(단, 비대면 신청 시 최대 1억 원), 기존 대출을 갈아타면서 한도를 증액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출 신청은 영업점 또는 우리은행 모바일 앱 '우리WON기업뱅킹'을 통해 가능하며, 네



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제휴 플랫폼의 대출 비교 서비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신상품 출시를 앞두고 지난 12

일 서비스 안정성과 이용 편의성 점검을 위한 사전 베타 테스트를 진행했다. 테스트에는 실제 개인사업자가 참여해 대출 비교 및 갈아타기 절차를 점검했으며, 비대면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을 한 번에 비교하고 대출 이동까지 가능한 점에서 높은 편의성을 확인했다.

상품 출시에 맞춰 이벤트도 진행한다. 우리은행은 대출이동서비스를 통해 다 금융기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조회한 신청순 2,000명에게 네이버페이(Npay) 포인트 1,000원을 제공하며, 우리은행으로 갈아타기를 완료한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하여 5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소호사업부 박준석 부장은 "이번 상품 출시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송원 기자

하나은행, AI를 활용한 지능형 여신 심사 체계 도입으로 생산성 높인다

생성형 AI 기반 기업 신용평가 심사의견 생성 시스템 자체 개발 및 전 영업점 도입

심사의견 작성 시간 30분 → 10초 단축, 연간 약 2만7천 시간 업무 절감 기대



하나은행은 기업금융의 AX 가속화를 위해 생성형 AI 기반의 '기업 신용평가 심사의견 생성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전(全) 영업점에 전면 도입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기업대출 취급 시 필요한 기업 신용평가의 심사 종량의견 작성성을 생성형 AI 기반으로 자동화

하여 업무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생산성을 높였다.

이는 기업여신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훨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기업의 상황을 더 빠르고 깊이 이해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은행의 '실용적 AI' 방향성에 맞춰 자체 개발했다.

'기업 신용평가 심사의견 생성 시스템'은 기업의 재무제표, 업체

정보, 산업 동향 등 다양한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외감 기업과 비외감 기업의 신용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심사의견 초안을 자동으로 생성한다.

기존에는 직원들이 기업 신용평가 심사의견 작성을 위해 기업지표 분석과 서술형 의견 작성에 평균 30분 이상이 소요됐으나, 이번 시스템의 도입으로 심사의견 초안을 약 10초 만에 생성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연간 약 7만 건에 달하는 외감·비외감 기업의 신용평가 업무에서 약 2만7천 시간 이상의 업무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시스템은 하나은행이 독자적으로 알고리즘을 설계·구현한 인하우스(In-House) 모델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은행 내부 부서 협업을 통해 실제 여신 전문가들의 평가 가이드 라인을 알고리즘에 반영함으로써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심사의견을 정교하게 표준화하고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향후에는 가계여신과 기업여신 심사 전반으로 자동화 프로세스를 확대함으로써 여신업무 프로세스의 AX를 가속화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며, 신뢰할 수 있는 '지능형 여신 심사 체계'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은행 AI데이터전략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발은 AI를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직원들이 손쉬운 기업 업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다양한 업무 영역에 AI를 접목하고, 영업점과 손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송원 기자

하이트진로, 테라 '손흥민' 통합 캠페인 본격 슈팅

손흥민 사진과 사인 포함된 '테라 X SON7' 스페셜 에디션 출시



7주년 맞는 테라와 대한민국 대표 7번 손흥민의 100% 리얼 시너지가 시작된다.

하이트진로(대표 장인섭)는 최근 발탁된 테라 브랜드 모델 손흥민을 앞세워 '테라 X SON7' 스페셜 에디션 출시와 함께 TV광고 두 번째 시리즈를 공개하며 협업을 본격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테라 X SON7' 스페셜 에디션은 리얼탄산 100% 테라의 대표 아이덴티티인 삼각 로고와 골드 컬러는 유지하면 손흥민의 사진과 실제 사인을 디자인에 적용했다. 특히 시

그니처 골 세레머니인 '찰칵 포즈'를 취하는 손흥민을 전면에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병 제품의 뚜껑 외부는 축구공 이미지로, 내부는 손흥민의 이니셜과 등번호를 상징하는 'SON'과 '7'을 새겨 재미요소를 더했다.

에디션 제품은 ▲유용량 500ml 병 ▲가정용 355ml, 360ml, 453ml, 500ml 캔 및 1.6L 페트 총 6종으로 전국 모든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에디션 출시에 맞춰 신규 TV캠페인 두 번째 시리즈도 18일 전격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3일 공개된 1편은 기자회견장에 테라 신규 모델 등판한 손흥민의 존재감에 초점을 맞췄다면 2편은 관중으로 꽉 찬 축구 경기장을 배경으로 프리킥을 준비하는 손흥민이 이목을 끌며 시작된다. '99%는 리얼이 아니다. 100%가 아니라면'이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손흥민이 찬 공이 날아가 테라 병 속으로 빠진다. 역동적인 테라의 탄산 이미지에 '단 1%도 다른 탄산을 넣지 않아 강력한 리얼탄산 100% 테라'라는 메시지가 나오며 테라를 시원하게 음용하는 손흥민과 함께 광고는 마무리된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관계자는 "테라 X SON7 스페셜 에디션 출시, TV광고 시리즈 제작 등 테라와 손흥민 선수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들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소비자들께서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테라 X 손흥민'이라는 공식의 대세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